초경량·배기가스 '0'… 1ℓ로 100km 주행

르노삼성 | 이오랩 상륙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2일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에서 연료 1ℓ로 1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이오랩을 소개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오랩은 유럽연비시험기준(NEDC)으로 1ℓ의 연료로 100km를 달리는 검증을 마쳤다.

제조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성능 목표지니 피해자의 개념을 보여주는 콘셉트카를 뛰어넘는 프로토타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2g/km 수준이다.

1ℓ로 100km를 달릴 수 있게 된 성과는 3가지 주요 혁신에서 이뤄졌다.

우수한 공기역학과 경량화, 탄소제로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이오랩 차체는 효과적으로 공기를 가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경량 스틸, 알루미늄, 겨우 4kg에 불과한 마그네슘 루프 등의 복합 소재를 차체에 적용해 무게를 성인 6명 몸무게인 400kg까지 줄였다.

초고효율을 결정적으로 현실화한 Z.E 하이브리드는 120kph의 속도로 60km까지 전기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고 배기가스는 전혀 없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는 르노삼성의 New SM7 Nova, SM5 Nova, SM3 Neo, QM5 Neo, QM3, SM3 Z.E 까지 모든 라인업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전기차로 겨루는 F1 경기인 포뮬러 E의 레이싱카(Spark-Renault SRT_01E)를 공개한다.

117년의 모터스포츠 역사와 F1에 엔진을 공급하는 르노의 기술력이 녹아든 포뮬러 E의 레이싱카는 국내 모터스포츠 매니아들이 가장 기대하는 전시차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쌍용 ‖ 소형SUV 콘셉트카 XAV 첫 선

SUV DNA + 젊음의 혼… 정통 SUV 구현

박스형 설계·컨버터블캔버스 루프 적용

쌍용자동차는 2일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새로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 XAV를 처음 선보였다.

사측에 따르면 XAV(eXciting Authentic SUV)는 SUV DNA와 젊음의 혼을 담은 콘셉트카로 쌍용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확립하는 모델이다.

소형 SUV 플랫폼을 기반으로 SUV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진 XAV는 코란도에 대한 오마주와 젊은이들의 모험정신을 형상화했다.

SUV 고유의 비례를 살려 디자인한 외관과 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루엣을 통해 정통 SUV 이미지를 구현했다.

박스형 설계를 통해 야외활동에 필요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버터블 캔버스 루프를 적용해 개방성을 높였다.

전면부는 초기 코란도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레트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쌍용차 고유의 숄더윙 이미지를 램프로 연결했다.

XAV의 후면부는 정통 SUV의 강인한 이미지가 표현된 공간이다.

외부에 노출된 스페어 타이어와 보조 연료탱크는 야외활동과 비상 시 차량 관련 사물을 탑재하는 외부 사물함으로 재탄생했다.

우람한 범퍼는 거침없이 자연을 달리는 정통 SUV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XAV의 인테리어는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유도를 높였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성 있는 디스플레이 다양한 수납공간과 스포츠 시트를 적용했다.

XAV에는 1.6리터 엔진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후륜에 전기모터로 구성된 e-4WD 시스템을 채택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과 스테레오 비전에 조합된 스마트 모션 컨트롤 시스템은 도로의 요철과 상태를 판단해 주행품질을 향상시킨다.

/이성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아우디 ‖ A6·A7·TT·A1 등 총 22종

아우디 코리아는 2일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에서 올해 국내 출시를 앞 둔 코리아 프리미어 모델 8개를 포함해 총 22개의 차량을 선보였다.

코리아 프리미어 모델은 '뉴 아우디 A6', '뉴 아우디 S6', '뉴 아우디 A7', '뉴 아우디 S7', '뉴 아우디 RS7', '뉴 아우디 TT', '뉴 아우디 A1', '뉴 아우디 Q3' 차량이다.

이번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에는 뉴 아우디 A6와 뉴 아우디 A7의 국내 첫 공개를 축하하기 위해 아우디 코리아 홍보대사인 배우 이진욱과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참석해 차량 언베일링 행사를 진행됐다.

사측에 따르면 2015 서울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처음 선보인 뉴 아우디 A6는 2011년 출시됐던 7세대 아우디 A6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뉴 아우디 A6는 더욱 가벼워진 차체와 보다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모든 엔진 라인업에서 출력이 향상됐다.

새로운 싱글프레임과 헤드라이트 등 달라진 디자인 요소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뉴 아우디 S6와 함께 올 해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佛 프리미어 모델 3종… 연비·속도 강화

푸조 || 508RXH 등 공개

"작년比 2배 실적 도전"

푸조 공식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푸조의 아시아 프리미어 'New 푸조 508 RXH'와 '208 T16 파익스 피크' 'New 푸조 308 1.6' 모델 3종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사측에 따르면 푸조 508 RXH는 유로 6를 만족하는 2.0 BlueHDi 엔진을 탑재해 최대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1.2kg·m의 힘을 발휘한다.

508 RXH는 약 21km/ℓ(도심 19km/ℓ, 고속 23km/ℓ/유럽 기준)의 연비를 낸다.

푸조 508 RXH는 푸조 508 SW를 베이스로, 차폭과 높이가 508 SW 보다 넓고 높아 도심 밖에서도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오프로드 성향이 가미됐다.

여기에 18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했고 범퍼 사이드스커트, 펜더 부분에 무광의 블랙 라인을 둘러 강인한 인상은 강조했다.

범퍼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한개등은 삼중으로 구성됐다.

푸조는 현장에서 새로운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308 1.6 모델도 공개했다.

푸조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그동안 1600cc 이하 모델에는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인 MCP를 장착했다.

이번 1.6 엔진 모델에는 새로운 6단 자동변속기 EAT6을 채택했다.

EAT6 변속기는 기어 변속 속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마찰은 감소시킨다.

푸조 308 1.6은 유로 6 기준을 충족시키는 Blue HDi 엔진을 탑재해 최대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힘을 낸다.

연비는 약 28km/ℓ(도심 25km/ℓ, 고속 30km/ℓ/유럽 기준) 수준이다.

208 T16 파익스 피크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다.

208 T16 파익스 피크는 일명 '구름 속의 레이스'로 불리는 파익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 대회에서 8분 13.878초라는 역대 신기록을 경신한 푸조의 모터스포츠 차량이다.

208 T16 파익스피크는 3.2L V6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대 출력 875마력, 최대토크 90kg.m의 힘을 뿜어낸다.

여기에 중량을 875kg까지 낮춰 1:1(875 hp/875 kg)의 출력 대 중량비(power-to-weight ratio)를 구현했다.

최고속도는 241km/h에 이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시간은 1.8초다.

/서희원기자 remember@metroseoul.co.kr

푸조 508RXH

푸조 208 T16 파익스 피크

시트로엥 || C4 칵투스

TPU 소재 에어범프·독특한 스타일링

시트로엥 C4 칵투스

시트로엥 공식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2일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C4 칵투스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사측에 따르면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C4 칵투스는 측면과 앞면에 부드러운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에어범프를 적용했다.

에어범프는 안에 에어 캡슐이 들어있어 도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독특한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또 C4 칵투스는 조수석 에어백을 루프로 옮겨 깔끔하고 쾌적한 인테리어와 함께 8.5L의 넓고 깊은 대시보드 수납공간을 갖췄다.

C4 칵투스는 유럽기준 약 28km/ℓ의 연비를 내며 105g/km의 CO2를 배출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DS는 외관을 더욱 스타일리쉬하게 다듬은 새로운 DS3와 함께 DS3 카브리오와 플래그십 모델 DS5를 선보였다.

DS3 카브리오

이번 모터쇼에 공개된 DS3에는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헤드라이트가 새로 적용됐다.

3개의 발광다이오드(LED)와 1개의 제논 모듈이 조합된 헤드라이트는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에 푸조시트로엥(PSA)의 최신 라이팅 기술력이 더해져 개선된 시야와 일반 할로겐 램프보다 20배 긴 오랜 수명과 적은 전력 소모량을 갖췄다.

/서희원기자

차체·실내공간 확장… 연비까지 빵빵

한국토요타 || 프리우스

새로운 프리우스가 나타났다. 우수한 연비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해졌다.

한국토요타는 2일 열린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2015프리우스V'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체는 커지고 실내공간은 넓어진 '비 프리우스'다. 기존 프리우스 대비 전장과 전고, 전폭이 각각 165mm, 95mm, 25mm 늘어났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차체 확장으로 공차중량이 증가했음에도 17.9km/L(복합기준)의 뛰어난 연비를 달성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2g/km으로,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혜택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쾌적한 실내공간은 프리우스V의 장점이다.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좌석에는 15mm씩 12단계로 조절되는 시트 슬라이드 및 리클라이닝 기능을 채택해 신장 185cm승객도 여유롭게 승차할 수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사이의 공간도 넉넉하다. 뒷좌석 시트는 60:40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968L(자체조사, 2열시트 폴딩시 1905L)의 트렁크 용량은 SUV 수준이다.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의 가족들에게 긴 짐을 편리하게 적재 하는데에도 매우 편리하다.

실내 천정에는 파노라마 루프를 기본 장착해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특히 경량구조물과 수지(Resin) 루프를 차체에 직접 접착하는 방식으로 기존 프리우스보다 약 17kg이 가볍다.

센터패시아에는 크기가 커진 버튼과 균형감 있는 디자인. 주행과 관련된 버튼을 운전자 주변에 위치시켜 조작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토요타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돼 있다.

안전성은 높였다. ECB(전자제어브레이크 시스템), HAC(경사로 밀림방지장치) 등 원단유선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사양이 기본장착됐다. 실제 프리우스V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가 선정한 '2015년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된 바 있다.

가격은 3880만원이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친환경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해 기존 하이브리드에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패밀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과 함께 토요타가 지향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15 프리우스V구매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5대 한정판매… F 매니아 계층 노린다

렉서스 || 스포츠쿠페 RC F

렉서스는 2일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레이싱 쿠페 'RC F'와 'RC 350 F SPORT'를 공식 출시했다.

'RC F'는 IS F, LFA를 잇는 렉서스의 새로운 고성능 스포츠 쿠페 모델이다. 5.0리터 V8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473ps(7100rpm), 최대토크 53.7kg·m(4800~5600rpm)의 퍼포먼스를 낸다.

렉서스는 RC F의 경우 올해 15대 한정물량을 판매하고 다양한 고객 프로그램을 통해 'F 매니아 계층'을 점차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F'는 일본을 대표하는 서킷 '후지 스피드 웨이(Fuji Speed Way)'를 의미하며 렉서스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상징한다.

RC F는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가 걸린다. 시속 270km에 이르는 최고 속력을 자랑한다.

8단 SPDS (Sport Direct Shift) 변속기가 탑재돼 연비감소 효과까지 달성했다. 'SPORT S+' 모드에서 전자적으로 강력한 엔진 사운드를 합성하는 ASC(Active Sound Control)도 장착됐다.

차체에 탄소 섬유 소재의 카본 패키지(카본 후드, 카본 루프 및 카본 액티브 리어윙)를 적용해 9.5kg 가량 중량이 줄었다. 인테리어는 전용 미터계, 카본 트림, 알루미늄 페달, 스티어링 휠, 변속 노브, F 전용 스포츠 시트 등을 적용됐다. 'Mark Levinson' 프리미엄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에 17개의 스피커와 함께 탑재돼 공연장 사운드를 제공한다.

브레이크 제어방식이 아닌 좌우로 토크를 분배하는 기술이 적용돼 자량의 회전각도가 스티어링휠 각도보다 커지는 언더스티어 없이 빠른 코너링이 가능하다.

국내 판매가격은 1억2000만원이다.

'RC350 F SPORT'는 레이싱 쿠페라는 본질적인 스포츠 드라이빙 모델에 F SPORT 패키지를 적용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쿠페 모델로 탄생됐다.

3.5리터 V6 직분사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11ps(6400rpm), 최대토크 38.2kg·m(4800rpm)의 성능을 자랑한다.

RC350 F SPORT에 탑재된 카본 루프는 알루미늄 루프와 같은 수준의 충돌 안전성을 보인다. 국내 판매 가격은 8100만원이다.

/박상길기자 [illegible]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말리부

최첨단 안전 사양·정제된 디자인 갖춰

한국지엠 || 차세대 쉐보레 스파크

주행 성능 전반적 ↑ 실내 공간은 유지

시드 높이 하향 조정 차량과 일체감 배가

쉐보레는 2일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과 진보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쉐보레 스파크를 첫 공개했다.

사측에 따르면 차세대 스파크는 첨단 안전사양과 편의장비를 비롯해 향상된 주행 퍼포먼스와 정제된 디자인을 채택했다.

향후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될 쉐보레 브랜드의 글로벌 경차 신모델이다.

신차 공개 행사에 참석한 팀 마호니 글로벌 쉐보레 마케팅 총괄 임원은 "글로벌 톱 10 브랜드를 향한 쉐보레 브랜드의 비전 달성에 특히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가 느끼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안팎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차세대 스파크는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가 지향하는 가치 'FIND NEW ROADS'를 잘 설명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스파크는 기존 스파크 대비 확장된 휠 베이스와 36mm 낮은 전고를 통해 날렵하고 공기 역학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구현했다.

주행 효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실내 공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차세대 스파크에 적용된 새 아키텍처는 주행 성능 전반에 걸친 향상을 가져왔다.

견고한 차체 구조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일체감을 향상시켜 세밀하고 정확한 핸들링을 제공한다.

향상된 정숙성으로 편안하면서 즐거운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세르지오 로샤 한국지엠 사장은 "차세대 스파크는 글로벌 고객의 호응을 한 몸에 받아 온 기존 스파크의 등급 최고 주행성능을 이어 받으면서도 한층 정제된 주행 품질로 이전에 없던 세련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 신차 차세대 스파크의 아키텍처 개발은 물론 차량 개발과 디자인을 한국지엠이 주도하며 GM 글로벌 팀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시켰다"고 자신했다.

차세대 스파크는 △새로운 1.0리터 3기통 에코텍(Ecotec) 엔진과 차세대 C-TECH 무단변속기 △전방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7인치 고화질 스크린의 차세대 쉐보레 마이링크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라인업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채택했다.

상세한 제품 사양 정보는 향후 국내 출시 시점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현대자동차는 2일 도시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콘셉트카 '엔듀로'를 처음 공개했다. 또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지난해 5월 독일 하노버모터쇼를 통해 첫 선을 보였던 미니버스 '쏠라티'도 선보였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톱 브랜드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며 오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공개

콘셉트카 엔듀로(ENDURO, HND-12)

엔듀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디자인한 12번째 콘셉트카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2도어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전장 4271mm, 전폭 1852mm, 전고 1443mm의 차체 크기를 갖췄다.

2.0 T-GDi 엔진과 7단 더블클러치 트랜스미션(DCT) 적용을 통해 최고출력 260마력(ps), 최대토크 36.0kg·m 수준의 동력을 낸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전면부 현대차 고유의 육각형 그릴을 새롭게 해석해 그릴을 하단부에 놓고 시각적인 무게중심을 차체 하단으로 내림으로써 안정적이고 단단한 인상을 줬다.

측면부는 과감하게 차체를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을 통해 전면부의 볼륨감을 이어받았다. 또 전·후면 휀더 부분을 빈광택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 처리함으로써 역동적이고 날렵한 크로스오버 차량의 이미지를 추구했다.

후면부는 C필러와 테일게이트가 하나로 연결된 리어 콤비네이션램프를 통해 넓고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센터 머플러를 적용했다.

콘셉트카 RM15·쏠라티

현대차는 지난해 부산모터쇼를 통해 첫 선을 보였던 콘셉트카 '벨로스터 미드십(RM)'을 기반으로 성능을 한층 강화하고 내·외관 디자인을 다듬은 콘셉트카 'RM15(Racing Midship 2015)'을 공개했다.

RM15은 전장 4220mm, 전폭 1865mm, 전고 1340mm의 크기다.

터보차저를 장착한 고성능 세타 2.0 GDI 엔진은 탑재해 최고출력 300마력(ps), 최대토크 39kg.m, 제로백 4.7초의 동력 성능을 낸다.

엔진을 운전석과 뒷 차축 사이에 놓고 뒷바퀴를 굴리는 미드십 형식을 채택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대차는 고성능 기술에 대한 개발의지가 담긴 RM15의 서울모터쇼 출품을 계기로 고성능 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 육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지난해 하노버 모터쇼를 통해 첫 선을 보였던 유러피언 미니버스 쏠라티(SOLATI, H350)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라틴어로 '편안함'이라는 뜻을 지닌 쏠라티는 스타렉스(12인승)와 카운티 버스(25인승)의 중간 차급인 세미 본네트 소형 상용차급에 해당하는 차다.

국내에는 올 하반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쏠라티는 전장 6195m, 전폭 2038mm, 전고 2700mm의 차체 크기를 지녔다.

▲170(ps)마력의 2.5 CRDi 디젤 엔진 ▲미래지향적인 외관 디자인 ▲운전자 중심의 인간공학적 실내 디자인 ▲강력하고 경제적인 동력성능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국산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다.

작년 12월 국내에서 공개한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함께 현대차의 핵심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전기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엔진의 혼용으로 구동되는 기존 하이브리드카의 특성에 외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차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어 기존의 하이브리드카보다 효율성이 높은 진일보한 친환경차로 평가받고 있다.

전장 4855mm, 전폭 1865mm, 전고 1475mm의 차체를 갖춘 쏘나타 PHEV는 가로바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다.

쏘나타 PHEV는 ▲156마력(ps)을 발휘하는 누우 2.0 직분사(GDi) 엔진 ▲50kW 전기모터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했다.

또 ▲9.8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연구소 자체 측정치 기준 순수 전기차 모드로 약 40km의 거리 주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약 40km는 일반 운전자의 하루 평균 35.8km를 상회하는 주행거리다.

쏘나타 PHEV는 배기가스가 없는 순수 전기차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쏘나타 PHEV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으로 정차와 운행을 반복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FCWS)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스마트 하이빔(HBA) 등 첨단 안전과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신형 K5 모던 스타일

준중형 스포츠백 콘셉트카 NOVO

모던·스포츠 두 얼굴… 디자인 역량 집중

기아 ‖ 신형 K5·준준형 스포츠백 콘셉트카 '노보'

기아자동차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신형 K5를 첫 공개했다.

또 미래지향적 감성을 담은 준중형 스포츠백 콘셉트카 NOVO(노보, 코드명 KND-9)를 처음 선보였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신형 K5는 완성도 높게 진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드라이빙 스타일에 최적화된 폭넓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춘 모델"이라며 "국내외 중형 시장에 다시 한 번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형태의 콘셉트카로 절제된 조형미와 함께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준중형 스포츠백 콘셉트카 노보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아차의 미래 비전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차량 전면부 디자인을 모던스타일과 스포티 스타일 등 2가지의 듀얼 모델로 출시한다.

최근 중형 세단 시장 고객들의 성향이 점차 젊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기본 모델과 함께, 한층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전면부 디자인에 변화를 준 스포츠 모델을 추가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신형 K5의 엔진 라인업은 ▲2.0 가솔린 ▲2.0 터보 ▲1.6 터보 ▲1.7 디젤 ▲2.0 LPI ▲2.0 하이브리드 ▲1.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고객이 다양한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아차는 디젤 선호와 엔진 다운사이징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1.7 디젤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추가했다.

한편 기아차는 신형 K5와 함께 콘셉트카 노보를 서울모터쇼를 통해 최초로 선보임으로써 디자인 역량과 제품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아차 디자인의 혁신적 비전을 담은 노보는 준중형급 스포츠백(차체의 후면부 트렁크 리드가 짧아 스포티한 느낌의 루프형 세단) 콘셉트카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NOVO는 수많은 물질적인 자극 속에서 매일같이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아날로그적 감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 같은 가치'를 선사하고자 하는 기아차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NOVO는 전장 4640mm, 전폭 1850mm, 전고 1390mm, 축거 2800mm다. 1.6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를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200마력(ps)의 힘을 낸다.

또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 클러스터 ▲지문인식을 통한 차량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인터랙티브 컨트롤러 ▲블라인드 컨트롤(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도 편하게 손동작으로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한 터치패드를 적용했다.

기아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 시 운전자 대신 차량의 조향을 도와주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에서 한 단계 진화된 '전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을 이번 모터쇼에서 선보였다.

기아차가 이번 모터쇼에서 쏘울 EV를 통해 공개하는 전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뿐 아니라 하차 후 스마트키를 통해서도 구동되고 ▲직각 주차와 출차 ▲평행 주차와 출차 모두 가능하다.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스마트키를 이용한 원격 평행주차와 출차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직각주차·출차 기능은 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첨단 기술 직접 체험해보세요"

현대모비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서울모터쇼에 체험형 기술전시장을 마련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번 모터쇼의 주제를 'Experience MOBIS'로 내걸었다"며 "현대모비스의 축적된 기술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친숙한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모터쇼에서 504㎡ 규모의 개방형 전시장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현재 양산중인 핵심부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개발된 각종 신기술을 체험형 시뮬레이터와 대형 정보단말기를 통해 소개한다.

특히 전시장에 마련된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의 운전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가상 화면을 통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의 근간이 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 체험이 가능하다.

운전자보조시스템 시뮬레이터에는 주차 시 전후좌우 사각지대를 차량 내부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어라운드뷰모니터링 시스템(AVM)', 주행 중 주차와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거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차량을 스스로 멈춰주는 '긴급자동제동장치(AEB)',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차선유지보조장치(LKAS)', 설정된 속도로 자동주행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시켜주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시스템(SCC)', 운전자의 핸들조작 없이 스스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주차보조시스템(SPAS)'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현대모비스는 제동, 조향, 램프, 오디오 등 각종 부품들을 전시하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정보단말기를 통해 각 제품들을 직접 구현해보면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차량용 레저용품과 각종 애프터마켓 튜닝용품도 선보인다. 용품들은 각각 기아차 '카니발'과 현대차 '벨로스터'에 장착돼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이는 모든 기술과 제품들은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전시장에서 안내한다. 관람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전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전시물 외에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시장 2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는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현대모비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주니어공학교실'이 매주 주말에 실시된다.

주니어공학교실은 현대모비스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실습형 과학수업으로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모터쇼를 방문한 아이들의 흥미를 키워주기 위해 이번 모터쇼 기간 중 선착순 30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총 24회 특별 운영된다.

/정소라기자 ssolaa@

BMW코리아 ‖ 자동차 23종·모터사이클 6종

뉴6시리즈 등 국내 모터쇼 역대 최다 전시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2015 서울 모터쇼에서 국내 모터쇼 참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BMW 자동차 23종, 모터사이클 6종 등 총 29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2일 시측에 따르면 뉴 6시리즈 그란 쿠페와 뉴 6시리즈 컨버터블, 뉴 M6 그란 쿠페가 국내 최초로 데뷔한다.

BMW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이 일반 공개된다.

최근 출시된 뉴 액티브 투어러, 뉴 435d xDrive 그란 쿠페와 함께 고성능 부문의 뉴 X5 M과 X6 M, M5 30주년 에디션 등 다양한 M 라인업이 전시된다.

BMW 모터사이클 부문인 모토라드는 어드벤처 스포츠 모터사이클 뉴 S 1000 XR과 온오프 주행에 적합한 R 1200 RS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뉴 R 1200 R과 F 800 R,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 S 1000 RR과 뉴 R nineT 등 모터사이클 모델을 선보인다.

BMW 뉴 640d xDrive 그란 쿠페는 성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새롭게 디자인된 앞뒤 범퍼와 키드니 그릴은 차체의 넓은 폭과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풀 LED 헤드라이트와 19인치 경합금 휠이 기본 장착됐다.

외관의 경우 자토바 메탈릭, 캐시미어 실버 메탈릭을 포함한 5개의 색상이 추가됐다.

650i 컨버터블은 4인승 럭셔리 컨버터블로, 오픈카 특유의 특별한 즐거움을 만끽하게 한다.

세련된 느낌의 패브릭 소프트탑은 계절에 상관없이 높은 활용성과 정숙성을 제공하며 쿠페 라인을 떠올리게 하는 지느러미 구조로 디자인됐다.

M6 그란 쿠페는 6시리즈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디자인, 효율성, 민첩성에 럭셔리함과 파워를 더한 진정적인 4도어 M카다.

/여성현기자 seoan@metroseoul.co.kr

BMW 650i 컨버터블

◆ BMW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주요 출품차량

- BMW 뉴 640d xDrive 그란 쿠페 국내 최초 공개
- BMW 뉴 650i 컨버터블 국내 최초 공개
- BMW 뉴 M6 그란 쿠페 국내 최초 공개
- BMW i8 국내 일반 공개
- BMW 뉴 R 1200 RS 국내 최초 공개
- BMW 뉴 S 1000 XR 국내 최초 공개

"i8로 친환경 시대 주도할 것"

김효준 BMW 사장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BMW 그룹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i8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효준 BMW 코리아 사장은 "i8은 BMW가 미래시장을 개척할 새로운 모델로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i8은 3기통 1.5ℓ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최고출력 362마력, 최대토크 58.2kg·m을 발휘한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기준 13.9km/ℓ,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47.6km/ℓ이나. BMW 관계자는 "국내 가격은 1억9990만원으로 벌써 예약판매가 100대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BMW i8은 차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을 활용해 강성은 높이고 중량은 줄였다. 낮은 무게 중심, 균형 잡힌 무게 배분, 낮은 공기저항계수를 갖춰 역동성은 물론 강렬한 드라이빙 경험까지 제공한다.

i8에는 첨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BMW 직렬 3기통 1.5리터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BMW eDrive 기술이 결합해 362마력을 발휘한다. 제로백(정지→100km/h)은 4.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안소라기자

BMW 뉴 미니 John Cooper Works(JCW).

뉴 미니 JCW·수퍼레제라 비전 최초 공개

BMW 코리아는 올해 새롭게 출시될 뉴 미니 JCW를 비롯해 로드스터 콘셉트카인 '미니 수퍼레제라 비전' 등 총 8가지의 모델을 전시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뉴 미니 John Cooper Works(JCW)는 56년 BMW 브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 성능을 갖춘 고성능 모델이다. 미니의 축적된 레이싱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2.0리터 4기통 MINI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31마력의 강력한 힘을 갖췄다. 엔진성능이 향상된 만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유럽 출시 모델 기준 단 6.1초다. 최고속도는 246km/h에 이른다.

뉴 미니 JCW는 정확한 차량 제어와 강력한 주행 성능을 통해 일상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전은 레이싱카 수준의 엔진과 서스펜션 자체, 운전석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집적됐다.

JCW 전용 18인치 컵 스포크 투톤 경합금 휠과 스포츠 서스펜션, JCW 공기역학키트, 자랑 전면부의 큰 공기 흡입구 및 JCW 스포츠카 스타일의 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안소라기자 ldsun@

닛산 ‖ SUV '올 뉴 무라노' 亞 최초 공개

움직이는 스위트룸… 차세대 SUV 디자인

V-모션 그릴·제트기서 영감

한국닛산은 2일 서울모터쇼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 뉴 무라노'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닛산에 따르면 올 뉴 무라노는 '움직이는 스위트룸'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한 무라노의 3세대 풀 체인지 모델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 VIP들의 소셜 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고급스럽고 안락한 실내, 동급을 뛰어넘는 편의와 안전 기술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춘 브랜드 대표 SUV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닛산은 올해 회계연도 안에 올 뉴 무라노의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닛산 SUV 풀 라인업을 완성해 국내 소비자의 다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64%에 달했던 비즈니스 상승세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뉴 무라노는 V-모션 그릴, 제트기에서 영감을 얻은 플로팅 루프라인 등 공기역학적인 닛산 차세대 SUV 디자인을 대거 적용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 위치 조정·조작 버튼 재배치 등을 통해 이전 세대 대비 보다 직관적으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형 세단 알티마와 도심형 SUV 캐시카이를 통해 선보인 저중력 시트(Zero-Gravity seat)를 적용해 편안함을 추구했다.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대표는 "한국에서 닛산 SUV 라인업의 완성을 모델인 올 뉴 무라노를 이번 서울모터쇼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게 돼 영광"이라며 "올 뉴 무라노는 차량의 모든 부분에서 동급 경쟁모델들을 압도하는 뛰어난 상품성을 기반으로 닛산의 비즈니스 성장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까지 끌어올릴 핵심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미엄 중형 세단에서부터 SUV, 100% 전기차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모델들을 통해 연 간에 목표 5500대 달성과 고객 만족도 상승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림기자 rennan@metroseoul.co.kr

'아테사 E-TS' 사륜구동 시스템 탑재

인피니티 ‖ E세그먼트 뉴 Q70L

고객 분석 후 국내 도입 결정

인피니티는 2일 서울모터쇼에서 플래그십 세단 Q70의 롱 휠베이스 모델인 더 뉴 Q70L을 공개했다.

사측에 따르면 뉴 Q70L은 기존 모델 대비 150mm 증가한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전장 5130mm, 축거 3050mm에 이른다.

등급을 넘어 한 단계 상위인 F세그먼트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2열 레그룸과 무릎 공간은 각각 142mm, 150mm 늘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수준의 공간 활용성을 제공한다.

뉴 Q70L에는 '아테사 E-TS'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돼 안정성을 지원한다.

기존 Q70의 퍼포먼스와 감성 품질 및 편의 장치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인피니티는 서울모터쇼 기간 고객 분석을 통해 해당 모델의 향후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환 인피니티 세일즈 마케팅 총괄은 "최근 글로벌 인피니티는 해외 모터쇼를 통해 Q30, Q60, Q80 및 QX30 컨셉트를 선보이는 등 진정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2015 서울모터쇼 뉴 Q70L 공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주목 받는 한국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람기자

기술 총동원… 고효율·친환경 엔진장착

포드코리아 ‖ 올 뉴 몬데오 등 신차 3종

차체 초고강성 스틸 적용 유럽 신차 평가 최고등급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데이비드 식 포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대표와 정재희 포드코리아 사장이 올 뉴 몬데오를 발표하고 있다

포드코리아는 3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5 서울모터쇼에서 올-뉴 몬데오, 뉴 쿠가, 올-뉴 링컨 MKX 등 3개 차종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사측에 따르면 올-뉴 몬데오와 뉴 쿠가는 포드코리아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디젤 라인업 확장을 위한 전략 모델이다.

포드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디젤차 부문의 중요성을 감안, 디젤차의 본원인 유럽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각각 선보여며 수입 디젤차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또 올-뉴 링컨 MKX를 아시아 지역 최초로 공개하며 프리미엄 중형 SUV에서 MKX의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데이비드 식 포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대표(부사장)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포드의 선전을 언급하며 이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식 대표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포드 그룹 미래 성장계획에서 향후 전체 60% 이상의 성과를 담당할 가장 중요한 전략지"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3년 동안 100% 이상의 성장을 이룬 핵심 전략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올-뉴 몬데오에 탑재된 2.0리터 TDCi 디젤 엔진은 고효율·친환경에 부합하는 포드의 기술이 집약됐다. 새로운 2.0L TDCi 디젤 엔진은 복합 연비 15.9km/L의 고효율을 실현하고 낮은 RPM에서도 최고출력 180 마력(ps), 최대토크 40.8kg.m을 발휘하는 높은 동력 성능을 갖췄다고 사측은 전했다. 올해부터 국내 적용되는 유로6 기준을 만족해 친환경성도 인정받았다.

올-뉴 몬데오는 새로운 초고강성 스틸을 구조체에 적용해 차체 강성을 높여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인 유로 NCAP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5 스타)을 획득했다.

또 동급 유일의 뒷좌석 팽창형 안전벨트와 어댑티브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램프,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 안전 기술이 집약됐다.

/이범할기자 ronan@

머스탱 GT

올 뉴 링컨 MKX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클래스 등 신차 3종

한국형 프리미어 모델 공개… 완벽함에 품격을 더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한국형 프리미어 모델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클래스 (사진)', '메르세데스 AMG GT', 'S 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선보였다.

2014년 11월 LA 모터쇼에서 첫 공개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클래스'는 벤츠 S 클래스의 완벽함과 마이바흐의 고급스러움을 결합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기존 S 클래스보다 넓은 실내를 자랑한다. 특히 뒷좌석은 다른 차량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와 새로운 차원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S 600와 S 500 두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2억 9400만원(부가세 포함), 2억 33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메르세데스 AMG GT'는 벤츠의 서브브랜드 메르세데스 AMG가 독자 개발한 두 번째 모델로 뛰어난 모터스포츠 성능과 드라이빙 실용성을 결합한 정통 스포츠카다.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V8 바이터보 엔진, 건식 윤활방식 7단 듀얼 클러치 스포츠 변속기, 스포츠 서스펜션 알루미늄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으로 총 중량은 1540kg 수준이다.

가벼운 구조로 레이싱카에 버금가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프런트 미드 엔진 컨셉에 뒤 차축 트랜스 액슬 변속기를 택한 덕분에 전륜과 후륜 간 47 : 53의 이상적인 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메르세데스 AMG GT는 2015년 3분기 국내 출시 예정이다.

S 500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는 벤츠의 첫 번째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자 세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소음지와 적은 연료로 파워풀한 성능을 실현한 진완성 럭셔리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ℓ당 약 35.7km로 뛰어난 효율성은 자랑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65g이다. S 500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는 2015년 국내 출시 예정이다.

/양소리기자 Ifeuun1@

AK플라자가 2015년 春 정기세일을 맞아 신진 일러스트레이터 허경미 작가와 협업을 통해 특별 제작한 돈쉽티 브런치 컬렉션을 증정한다. 옛날의 기쁨 주제를 담은 허경미 작가의 스케치 작품을 도자기 식기에 입혀 라이스&수프볼(4p), 서빙플레이트(4p), 사이드볼(4p), 빅볼(2p), 머그(2p) 등 총 16p로 구성된 브런치 컬렉션을 완성했다. /AK플라자 제공

현대홈쇼핑, 태국 진출

합작법인 설립계약

현대홈쇼핑(대표 강찬석)이 중국·베트남에 이어 태국 홈쇼핑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홈쇼핑은 태국 1위의 방송통신기업 인터치 그룹의 자회사인 인터치 미디어와 합작법인 'HIGH 쇼핑'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내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법인의 자본금은 5억 바트(한화 175억원 상당)로, 현대홈쇼핑은 이 중 2억 4500만 바트를 출자해 지분 49%를 확보, 인터치 미디어와 공동으로 경영한다.

현대홈쇼핑은 HIGH 쇼핑의 현지 상품 소싱 및 마케팅 전략, 홈쇼핑 방송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터치 미디어는 방송시설 구축과 현지 인력 지원, 채널 송출을 맡는 구조다.

회사 측은 5월부터 MD, PD 등 1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현지 인기 상품 소싱과 방송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생활 주방용품 등 국내에서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을 함께 소싱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는 "현대홈쇼핑의 방송 노하우와 인터치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고 태국 국민들의 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쇼핑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한샘, 계열사 앞세워 골목상권 위협"

인조석가공업協 "中 저가 자재 대량공급… 영세업자 설 자리 없어"

가구 업계 한샘이 중국산 저가 품질의 인조대리석 제품으로 골목시장을 잠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그 이익을 한샘 최양하(66·사진) 회장이 챙겼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한샘이 골목상권 침해·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중국 저가제품 대량 공급 등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인조대리석 시장 질서를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인조대리석을 가공·유통하는 업체 대부분은 매출 1억~3억원 규모의 영세사업자다. 인조대리석 시장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합 측은 한샘을 내세워 한샘이펙스가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고 한샘의 내부거래 비중도 한 때 70%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한샘이 대량 수입하는 원료인 중국산 UP(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MMA(메타아크릴레이트)와 비교해 30% 이상 가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명성국 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와 한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쉽게 돈을 벌고 있다"며 "중국산 자재를 들여와 유통과 가공을 하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한샘이펙스가 인조대리석 가공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목대(가구부분)은 한샘의 시공전문 자회사인 서비스원이, 대리석상판은 대리석 가공업체, 부엌 빌트인 기기는 기기회사 등이 각각 쪼개서 맡아왔다. 한샘 측은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한샘이펙스가 인조대리석 가공을, 서비스원이 시공을 각각 전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이펙스는 인조대리석의 가공·자재판매, 사무용가구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샘이펙스 내 한샘과의 거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99억원에서 2011년 235억원, 2012년 265억원, 2013년 287억원, 2014년 337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비중은 2010년 56%에서 지난해 47%로 줄었다. 한샘 측은 "사업다각화로 인해 내부 거래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고액 배당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99%와 55%의 배당을 실시, 한샘이펙스의 최대주주로 있던 최양하 회장(41.3%)을 비롯해 한샘 창업주 장녀인 조은영(35.5%)씨에게 수익이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는 한샘이 지분을 38%로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최 회장과 조은영 씨의 지분율은 각각 25.6%, 22%다.

명 이사장은 "한샘(한샘이펙스) 쪽에서 중국산 자재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어 거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 내부 거래비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내부거래에 의한 전체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샘 측은 최 회장이 현재 최대주주가 아닌데다 내부거래 비중도 줄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수치들이 대체로 이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로 최대주주는 한샘"이라며 "이펙스 매출액시 지난해 710억원 수준으로 오히려 한샘의 성장보다 더딘 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가 원료 지적과 관련 "UP나 MMA는 인조대리석의 원료 중 하나로 해당 성분만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없고 한샘이펙스는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위기의 '소셜커머스'… 매각·신사업·갑질 구설수

coupang
위메프
TMON

쿠팡,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업체가 국내시장 진출을 앞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대표 신현성)은 설립 5년만에 주인이 3번 바뀔 처지다. 티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소셜커머스업체 그루폰은 티몬의 지분 50% 이상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현 대표에게 경영을 맡긴다. 양측은 막바지 세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쿠팡(대표 김범석)은 배달서비스 '로켓 배송'이 위법성 논란에 휘싸였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상품을 택배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배달기사인 쿠팡맨을 고용해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한다. 지난해에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15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영업 가능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개인용 흰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배송업을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까지 조사에 나섰다. 쿠팡 측은 "국토부와 로켓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내부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위메프(대표 박은상)도 연초부터 갑질채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박은상 대표까지 사과에 나서며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최저가라 함은 위메프의 올해 경쟁력 강화전략 중 최상위의 개념으로 소싱된 제품이 선택돼 판매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 모두에서 효율성을 이루겠다는 위메프의 의지 표명"이라며 "이를 위해 MD 전문성, 큐레이팅 활성화, 물류·고객센터 최적화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모토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시장 4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올해는 모바일 시장을 등에 업고 5조원까지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황금기를 구가했던 소셜커머스 시장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사업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현대百그룹, 사회적기업 본격 육성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은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기업 패셔니스타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사회적기업 패셔니스타(Passionista) 지원 프로젝트는 기존 단순 판로 지원 외에 ▲거점 지원 ▲경영 자문 ▲교육 등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체계화한 게 특징이다.

향후 3년간 매년 사회적기업 3곳과 결연을 맺고 총 9개 결연기업에게 1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은 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그룹 홈페이지(www.ehyundai.com/newPortal/gl)와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를 통해 결연 대상 사회적기업 공모작업을 진행한다.

아동 분야와 식품·패션 리빙 등 현대백화점그룹과 사업 연계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참여 대상은 ▲기업가정신 ▲사업모델 ▲조직역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연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비비안 '봄 스타킹'

비비안이 봄 스타킹 신상품을 출시했다.

비비안 스타킹 신상품 15종은 화사한 색상과 여성스러운 패턴, 각선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패션스타킹은 핑크 톤의 색상을 적용했으며 작은 큐빅이나 도트 패턴 등이 활용됐다.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는 압박 기능, 올풀림방지·자외선 차단 등 스타킹 기능의 종류도 다양하다.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패션 삭스도 선보였다.

신라스테이 제주, 루프탑 라운지 신메뉴 출시

제주 야경 즐기며 맥주 한잔

피자 등 안주메뉴 선보여

신라스테이 제주는 호텔 꼭대기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야경과 함께 즐기는 수 있는 맥주와 콤비네이션 피자 등 안주 메뉴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제주의 바다와 제주시의 야경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에선 맥주 5병을 골라 담을 수 있는 비어 바스켓(Beer Basket)과 셰프 특선 피자, 모둠 치즈, 과일 등 각종 안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루프탑 라운지는 평일과 주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가격은 비어 바스켓이 1만5000원부터다.

금·토요일에는 여유로운 주말의 휴식을 만끽하며 무제한으로 와인을 맛보는 위크엔드 와이너리(Weekend Winery)가 열린다. 와이너리에선 육스팔 말벡, 피노 누아, 토코르날 멜롯 등 레드와인 4종과 칸디다토 비우라, 까테나 지파타, 육스팔 샤도네이 등 화이트와인 4종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가격은 1인 기준 3만원으로, 와인과 모둠 스낵세트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라스테이 제주 루프탑 라운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헤븐리 스프링(Heavenly Spring)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탠다드 객실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조식 2인, 로맨틱 루프탑 바 이용권 2인, 스페셜 기프트로 구성됐다.

객실에서의 편안한 쉼과 더불어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2층 루프탑에서 와인 또는 맥주를 마시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스페셜 기프트는 객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욕제와 신라스테이 베어로 구성된 템퍼 세트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 가격은 15만9000원(10%세금 별도)부터.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최대 50% 할인

자외선차단 전 품목… 내일부터 7일간 행사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4일부터 7일간 자외선 차단제 전품목을 할인하는 '선 페스티벌(Sun Festival)'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품목별로 2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외선 차단제 전품목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광고 품목인 '블랜클라우드 미안 수분 크림'과 미백기능성 및 색조 제품 일부, 남성 기초 제품 등도 30% 할인한다. 해당 기간 '더테라피'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더테라피 3종 스페셜 샘플 키트'를 증정한다.

Sun Festival

50% up to

미즈메디병원, 진료비 자동결제

미즈메디병원은 환자들의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오픈카드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픈카드 시스템은 환자가 결제할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진료비, 검사비 등을 원무과에 수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진료비 자동 결제 후 휴대폰으로 결제내용이 전송되며, 진료비 영수증은 등록된 e-메일이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동국제약, 우리 아이 안전캠페인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세비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우리 아이 안전캠페인'은 아이들이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보육시설에 휴대용 구급가방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전달될 구급가방에는 상처치료에 필요한 '마데카솔연고', '밴드' 등의 제품과 디펜스벅스텍을 비롯해 핀셋, 가위, 알코올 솜, 밴드 등 응급용품들이 구비됐다.

행사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80-550-7575로 문의하면 된다.

강강술래 "나이·학력·전공제한 파괴 열린채용"

기숙사·자녀학자금 지원
입사후 이론·현장교육

강강술래를 운영중인 전한(대표 최동민)이 우수한 외식인재 양성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에서 나이·학력·전공 제한을 없앤 열린 채용을 실시한다.

전한은 나이와 학력,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선채용 후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SMP(Star Manager Program)과정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8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부씩 이메일(ojm2564@sullai.com)로 접수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총 5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ullai.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MP 과정은 외식 분야의 우수한 인재채용과 육성을 목표로 진행중인 프로그램이다.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6개월 동안 조리와 서비스,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외식관련 이론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근무, 벤치마킹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사와 동시에 정직원 급여를 지급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을 위해선 서울과 경기에 운영중인 16곳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4대 보험 적용과 경조사 지원을 비롯해 자녀학자금 지원(3개월 이후) 등의 복리후생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메트로, 이문세 게릴라 생방송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지난 1일 '펀펀(FunFun)지하철' 제2탄으로 가수 이문세씨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게릴라 생방송을 진행했다.

서울메트로가 '펀펀(FunFun)지하철'의 일환으로 기획한 이번 이벤트 일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60분간 2호선 삼성역에서 시청역 구간 내선(삼성→시당 방향)에서 운영됐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문세씨가 삼성역~낙성대역, 낙성대역~문래역, 문래역~시청역 구간에서 3개 열차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2월 '펀펀지하철'을 최초로 운행해 클래식 5중주팀이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OST, 클래식, 캐럴 등을 승객들에게 선사한 바 있다.

은행-금융당국, 안심대출 '동상이몽'

은행권 "수조원 손실 불보듯" 금융위 "자본비용 절감 효과"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은행권과 정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계를 보이고 있다.

연 3.5%대의 변동금리로 취급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최저 연 2.53%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안심대출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구조로, 대출채권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대출 취급 결과에 '갈지자' 행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은행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원금을 나눠 갚는 대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넘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또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 후 생긴 재원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적으로 매입, 1년간 보유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은행권 입장에서 볼 때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 3%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신 수수료가 2% 초반대인 MBS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눈치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밖에 없어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중은행이 수익으로 얻는 예대 금리 차이는 연 0.2~0.3%포인트 수준으로 최대 마진이 다소 줄긴 하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자 마진은 건전성 상승에 따른 자본비용 절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출 취급에 있어 서로 다른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향후 방향 '설왕설래' 이어져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 은행권 희생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안심전환대출 출시는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은 분명하다"며 "MBS 보유기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평가손실과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측면 듀레이션 미스매칭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40조원 한도 확대에) 대형 시중은행의 손실은 300억~500억원 규모로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주정 손실은 주가에도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확대로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약 1% 수준의 수익을 보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담 약 2000억원 감소와 일회성 취급 수수료 20bp 발생 등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주택담보대출이 MBS로 전환되면 위험가중치하락(주택담보대출35~70% →MBS 0%)으로 자본비용이 절감되고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제고된다"며 "예대율 하락에 따른 성장여력 확보도 긍정적"이라고 적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조기 소진 등 인기에 금융권에서는 향후 방향에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과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상환이 없거나 원금상환비율을 대폭 낮춘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심대출 2차분 소진 후 이번 주말께 안심전환대출 후속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선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2차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셋째 날인 1일까지 모두 6만8762건, 6조662억원 어치가 누적 접수됐다"며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출이 전환 가능하지만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승인 대상자를 선정, 오는 15일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metroseoul.co.kr

경매시장 과열… 아파트 30% 고가낙찰

수도권 평균 낙찰가율 7년7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달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3건은 감정가의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경매아파트 평균 낙찰가율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일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낙찰된 수도권의 아파트 699건 가운데 30.2%인 211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 비율은 지난해 7~13%대에 그쳤다. 그러나 올 들어 1월 14%, 2월에 18.8%로 증가한 뒤 3월 3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 경매아파트는 지난달 192건 중 31.8%인 71건에 고가에 낙찰됐다. 경기도 역시 342건 중 30.7%에 해당하는 119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은 120건 중 31건(25.8%)이 감정가를 초과했다.

고가로 낙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수도권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91.7%까지 치솟았다. 2007년 6월(9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지역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이 92.3%와 92.2%로 집계돼 각각 2008년 9월(99.1%), 2007년 6월(93.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도 2008년 6월(92.3%) 이후 가장 높은 9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이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는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나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가 경매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가 낙찰된 아파트 대부분이 감정가 1억~3억원대 중소형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달 고가 낙찰된 단지만 보더라도, 16일 낙찰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우국리더스빌 65.6㎡ 아파트는 감정가(1억4300만원)의 128%인 1억828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현대아파트 59.4㎡도 감정가(1억600만원)의 143%인 1억512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장을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입찰 경쟁도 높아졌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응찰자수는 평균 10.2명으로 물건당 10명을 넘어섰다. 인천이 11.9명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서울과 경기도는 9.8명과 9.9명으로 빠아졌다.

지난달 23일 입찰에 들어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9.9㎡는 무려 57명이 경합한 끝에 감정가(1억9300만원)의 112%인 2억1897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실적 상관없이 0.7% 적립 'KB국민 가온올림카드'

KB국민카드는 2일 전월 이용실적과 적립 한도 제한 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0.7%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신상품 'KB국민 가온올림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택시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주말, 공휴일 이용 시 금액의 0.3%를 포인트로 추가 제공한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포함한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7%가 환급된다.

보험사기 6000억원 시대, 업계 대응책은?

빅데이터 활용·특별 조사단 운영… "거짓말 다 찾을 것"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급증으로 이를 적발하고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997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2년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이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9.4% 증가한 8만4385명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보험사기 적발과 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현재 60여명의 보험사기특별조사단(SIU)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검찰 수사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조사원, 종합병원 의무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SIU는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FDS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FDS는 보험사기의 일정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의심도가 높은 보험 청구건에 대해 보상직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현대해상은 또 업계 최초로 보험사기 조사조직 전담 임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보험범죄정보 제보 포상금을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동부화재도 약 30명의 SIU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부화재의 SIU는 지난달 고가의 외산차인 람보르기니 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

LG "스켈레톤 대표팀 응원합니다"

향후 3년 전지훈련·장비 지원

LG전자 스켈레톤 국가대표 공식 후원 조인식

LG전자가 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조인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한신선수, 윤성빈선수,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회장, 윤라영선수, 이진희코치.

LG전자가 스켈레톤 국가대표팀의 후원자로 나섰다.

LG전자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 윤성빈 등 국가대표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조인식을 열었다.

스켈레톤은 엎드린 자세로 썰매 트랙을 활주하는 썰매 종목으로 1928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2006년 창단한 스켈레톤 대표팀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지난 2월 월드컵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LG전자는 3년간 스켈레톤 대표팀의 메인 스폰서로 국내외 전지훈련 비용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윤성빈 등 대표 선수들은 LG전자의 광고모델,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사장은 "스켈레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yaw@metroseoul.co.kr

LG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 팔 걷어

지난 2월 LG와 충청북도의 협력 아래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허 지원에 나선다. 특히 LG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2만 7000여건의 특허가 공개돼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충북혁신센터는 홈페이지(http://ccei.creativekorea.or.kr/chungbuk)에 특허지원 전용창구인 'IP(특허 등 지식재산) 서포트존'을 개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허 관련 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IP 서포트존은 공개된 2만9000여 건의 특허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특허 이용은 물론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 자문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창구를 만들어 충북은 물론 전국 모든 기업이 직접 방문 없이 특허 관련 지원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충북혁신센터는 지난 2월 초 전자·디스플레이·화학·생활건강 등 그룹 내 8개 계열사가 보유한 특허 2만 7000여건 과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1600여 건을 중소·벤처기업이 유·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훈기자

KT·부산대병원 '사물인터넷 병원' 만든다

원무과 간편 접수·치매 환자엔 위치추적 서비스도

KT가 부산대병원과 손잡고 번거로운 원무과 접수도, 길 헤맬 염려도 없는 사물인터넷(IoT) 병원을 만든다.

KT와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의 지역특화 의료서비스 R&D과제 추진을 위한 삼자협약'을 맺은 후속으로 'U헬스케어리미'를 활용한 치매·취약층 노령자 대상 안전서비스, 비콘(Beacon) 기반의 병원 혁신형 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IoT 역량과 의료ICT 기술을 토대로 솔루션과 플랫폼 개발을 총괄하고 부산대병원은 프로젝트 기획·운영과 시범적용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

U헬스케어리미는 손목형 웨어러블 단말기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는 물론 72시간의 이동경로 추적을 할 수 있는 KT의 IoT 서비스다. 착용자가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기술로, 내원하기 전 진료예약을 마친 환자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병원에 들어오면 원무과를 거치지 않아도 예약해 둔 진료과에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진료 순서가 되면 메시지를 보내 알려준다.

/이지하기자

"집청소, 해외서도 문제없어요"

삼성 '파워봇' 신모델 스마트폰 원격 조정

삼성전자가 2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로봇청소기 '파워봇' 신모델(사진)을 선보였다.

파워봇은 스마트폰에 '삼성 스마트 홈 앱'을 설치한 뒤 각 가정에 설치된 무선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등록하면 집 안은 물론 외출 중이거나 해외여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된 앱은 통해 파워봇의 전원은 물론 자동·수동 부분 등 청소 모드를 터치 한 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흡입 모드도 터보·일반·정음의 세 가지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수동 청소 모드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전진·좌회전·우회전 등 방향까지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동으로 충전기를 찾아가 알아서 충전하는 충전 복귀 기능과 한 번 또는 매일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예약 기능이 있다. 출고 가격은 129만원이다.

/정성훈기자 yaw@

LG유플러스는 유선 환경에서 제공하던 컨택센터(콜센터)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고객상담 서비스 'U+Biz 모바일컨택'을 2일 출시했다.

/LG유플러스 제공

아무때나 상담서비스 하세요

LG유플러스, 유무선 통합 'U+Biz 모바일컨택' 출시

LG유플러스는 유선 환경에서 제공하던 컨택센터(콜센터)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고객상담 서비스 'U+Biz 모바일컨택'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U+Biz 모바일컨택'은 기업의 고객관계관리(CRM)서버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고객정보 조회, 고객상담 메모, 가입자 간 무료통화, 중앙 녹취와 관리, 기업용 메신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고객 상담과 영업을 병행하는 담당자들이 외부에서 고객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 미리 자료를 준비하거나 사내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U+Biz 모바일컨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무선 결합서비스(FMC)를 제공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컨택 가입자 간 유·무선 무료통화가 가능하며 고객에게 전화가 올 때 고객 정보와 기존 상담 메모가 팝업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고객과 통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돼 중앙서버로 저장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U+Biz 모바일컨택' 출시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

SKT-삼성전자, ICT분야 활성화 맞손

사물인터넷 등 5대 영역 협력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영역 기술 개발과 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차세대 네트워크(N/W), 사물인터넷(IoT) 등 ICT분야 5대 핵심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 R3연구소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장동현 사장과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SK텔레콤 이형희 MNO총괄과 삼성전자 김영기 사장이 차세대 ICT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의 경영진들은 ICT 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를 선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차세대 네트워크 단말 기술 공동 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동 개발, IoT 플랫폼 공동 협력, 모바일 결제 공동 협력 논의, 국가안전망 공동 협력 등 5개 영역의 협력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지하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6·엣지' 4개국서 친환경 인증 획득

삼성전자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미국, 영국, 브라질, 러시아 4개국에서 나란히 친환경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최근 미국 안전규격 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지속가능제품 인증(SPC, Sustainability Product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전 과정에 걸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또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는 영국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배출량 인증(CO2 Measured Label)을 받았다. 두 제품은 브라질 기술표준기관(ABNT)의 친환경 제품 인증인 콜리브리 마크 인증, 러시아 친환경 인증기관인 생태연합의 생명의 잎 환경마크 인증도 받았다.

/정성훈기자 yaw@

소중한 재산 실속있는 분양가로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매월 수익은 신탁사에서 직접 드립니다.

RAMADA

분양가	대출	실투자	수익금	대출이자(4%일때)	수익률
9500만원	50%	4750만원	760만원	190만원	연 12%

관광인프라 강원랜드, 워터월드, 365 세이프타운 테마파크, 레이싱파크, 하이원 스키장, 오투리조트(스키장, 골프장) 등
교통여건 영동선, 태백선,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 국도 31, 35, 38호선, 정선 태백 주요 관광지 리무진버스 운행
사계절수요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황지연못(낙동강발원지), 검룡소(한강발원지), 태백산 눈축제 등 365일 다채로운 축제
최고부대시설 국내 최대 야외 글램핑장, 미디어 갤러리, 야외 레스토랑, 야외 바비큐장, 야외 수영장, 카페나폰

수익안심 보장제도
신탁사에서 매월 수익금 지급 관리
5년 후 원분양가 + α 로 환매 조건
10년간 연 12% 임대수익 + 4% 이자지원

임대차 계약서 발행

청약방법
청약금 : 100만원 [외환은행 630-009601-061]
예금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분양문의
02)756-2000

(주)산하HM
(주)월드스포츠

metro entertainment

"스물의 애매함, 서른에도 계속되지 않나요?"

영화 '스물' 이병헌 감독

'써니' '타짜' 등 시나리오작가로 명성
등장 인물들, 친구·자신의 모습 반영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독이 궁금해질 것"이라는 홍보 관계자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스물'의 이병헌(35) 감독 이야기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재기발랄한 영화를 만든 건지 궁금했다.

이병헌 감독은 충무로에서 시나리오로 먼저 소문이 났다. 강형철 감독의 '과속스캔들' '써니' '타짜-신의 손'의 각색에 참여했던 그의 첫 장편 연출작은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내건 2013년 개봉작 '힘내세요, 병헌씨'. 감독 입봉을 앞둔 30대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재치 넘치는 연출력으로 제38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화를 꿈꾼 건 아니었다. 대학에서도 전공은 영화와 무관한 국제통상학이었다. 다만 글쓰기 실력은 중학교 때부터 남달랐다. "특히 야설에 있어서는 제가 독보적이었어요. 옆의 학교에서도 제가 쓴 야설은 못 따라갈 정도였으니까요(웃음). 친구들 연애편지도 대신 써줬고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남들보다 영화를 조금 더 챙겨 볼 정도였던 그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즈음이었다. 26~27세에 쓴 시나리오가 운 좋게 영화사에 팔리자 본격적으로 영화판에 뛰어들었다(그때 팔린 시나리오는 여러 번 각색을 거쳐 임대웅 정려원 주연의 '네버엔딩 스토리'로 만들어졌다). '스물'은 그 당시에 쓴 습작 같은 시나리오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 치호(김우빈), 동우(이준호), 경재(강하늘)는 이병헌 감독 자신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적절하게 섞어서 반영한 캐릭터다. 동우와 경재는 캐릭터의 바탕이 된 실제 친구의 이름이기도 하다. 특히 만화가를 꿈꾸는 동우는 최규석 작가의 만화 '울기엔 좀 애매한'의 캐릭터도 함께 빌려왔다.

셋 중에서 이병헌 감독과 가장 닮아 있는 캐릭터는 치호다. 우연한 기회에 영화 촬영현장을 접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병헌 감독의 인생과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치호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대드는 모습 등도 비슷하다"며 멋쩍은 듯 웃었다.

'스물'에서 빠질 수 없는 공간은 주요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중국집 '소소반점'이다. 극중 세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치호의 여자친구인 소민(정소민)의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영화가 담고 있는 소소한 감성을 표현한 이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병헌 감독은 "소민의 오빠 이름을 소중으로 설정했다. 소민과 소중의 이름을 합쳐서 '소소 반점'이 된 것"이라며 거창한 의미를 담은 이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병헌 감독은 "영화 속 소소반점은 주인공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아지트 같은 장소이자 조금만 더 머물고 싶은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영화 후반부에서 아들이 소소반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통해 20대는 물리적으로라도 앞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나이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감초 같은 조연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박혁권이 연기하는 영화감독 캐릭터는 심드렁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병헌 감독 스스로 지금의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다.

"나른하면서도 조울증이 있고 무기력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불만은 엄청 많은 캐릭터죠.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기 전인 제 나이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해 알 건 다 알게 된 나이니까요. 치호가 겪어야 하는 다음 단계가 아마도 영화감독의 모습이겠죠. 영화에서 그 감독이 넘어지는 것은 제가 영화를 준비하다 몇 차례 엎어진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웃음)."

그렇다면 이병헌 감독이 생각하는 30대는 무엇일까? "20대나 30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무 살이 시작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애매함을 30대에서도 계속해서 앓아가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쥐지 못한 걸 쥐게 될 테니까요.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장병호기자 [illegible]

[illegible]

star bag

첫사랑 '꿀감성' 특급 만남'

수지와 **정승환**이 SBS 'K팝 스타4' 톱3 세미파이널 경연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인다. 두 사람은 절절한 발라드를 부를 예정이다. 어떤 선곡으로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할 지 방송 전부터 기대가 크다. 무대는 오는 5일 오후 4시50분 방송된다.

스릴러 '악의 연대기' 내달 개봉

손현주 주연의 스릴러 영화 '악의 연대기'가 다음달 14일 개봉된다. 영화는 2012년 개봉해 전국 560만 관객을 동원한 '숨바꼭질'로 흥행 배우에 등극한 손현주의 신작 스릴러로 관심을 모았다. 이번엔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담당형사가 되는 인물로 분했다.

'구여친클럽' 찌질한 남편

가수 **조정치**가 tvN 새 금토극 '구여친클럽'의 삼 통해 변요한·송지효와 호흡을 맞춘다. 데뷔 후 첫 정극 연기 도전이다. 조정치는 밴드 출신이지만 아내에게 잡혀 사는 지질한 남편 역을 맡았다. 캐릭터는 조정치의 실제 성격을 모티브로 탄생됐다. 작품은 슈퍼내니얼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 예정이다.

첫 솔로 곡 '알잖아' 발표

혼성그룹 코요테의 **빽가**(본명 백성현)가 데뷔 후 첫 솔로곡 '알잖아'를 2일 공개했다. '알잖아'는 사랑을 시작한 남녀가 행복한 시간 후 이별의 위기가 찾아오느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사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엄 템포의 곡으로 따뜻한 봄날과 잘 어울리는 편안한 멜로디 라인이 특징이다.

이준기, 조선시대 뱀파이어 변신

1년 만에 사극 '밤을 걷는 선비' 출연

배우 이준기(사진)가 또 사극에 출연한다. KBS2 드라마 '조선총잡이' 이후 1년 만이다.

이준기는 MBC 새 수목극 '밤을 걷는 선비'에서 김성열 역을 맡았다. 출중한 외모에 문무를 겸비한 재원이지만 연인과 친구를 잃고 뱀파이어가 되는 인물이다. 아픔을 숨긴 채 악에 맞서며 오랜 세월을 '갓선비'로 살아간다.

특히 이준기는 영화 '왕의 남자', 드라마 '일지매' '아랑사또전' '조선총잡이'를 통해 사극 킹으로 자리했다.

'밤을 걷는 선비'는 기획 단계부터 캐스팅 1순위로 이준기를 염두에 뒀다. 동명의 만화 캐릭터와 높은 일치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준기의 탁월한 연기력이 더해져 만화 속 인물이 어떤 몰입감을 선사할 지 주목된다.

'밤을 걷는 선비'는 '해를 품은 달' '기황후' 등 공동 연출한 이성준 PD, '커피 프린스 1호점' 장현주 작가가 제작한다.

'맨도롱 또똣' 후속 작으로 오는 7월 첫 방송된다.

/권보람기자 [illegible]

송중기·송혜교 첫 멜로 호흡

김은숙 작가 신작 '태양의 후예' 캐스팅

송중기 송혜교

배우 송중기·송혜교가 김은숙 작가의 신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난다. 진구, 김지원도 함께 출연한다.

제작사 바른손과 NEW는 2일 "배우 송중기·송혜교 그리고 진구·김지원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낼 블록버스터급 휴먼 멜로 드라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각 엘리트 코스를 밟은 특전사 소속 해외 파병팀장 유시진과 매력적인 의사 강모연 역을 맡는다.

송중기는 다음달 26일 전역 이후 작품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촬영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진구는 유시진과 같은 부대 특전사 소속 부사관 서대영 역을, 김지원은 파병부대 군의관 윤명주 역으로 로맨스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태양의 후예'는 '파리의 연인' '프라하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등 흥행 드라마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다. '여왕의 교실'의 김원석 작가와 공동 집필한다. 영화 투자배급사인 NEW와 영화 제작사 바른손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태양의 후예'는 프리 프로덕션을 마치는 대로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2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신화' 김동완의 싱글라이프

◆ MBC '나 혼자 산다' 오후 11시15분

더 무지개라이브 코너에서는 그룹 신화의 김동완이 싱글 라이프를 공개한다.

이태곤이 일본 팬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전통한지 손거울 만들기에 도전한다.

김남은 여대 앞 봄 나들이에 나섰다. 김남은 여대생들에게 둘러싸여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며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정리=이혜리기자 [illegible]

◆ SBS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오후 10시

역대 최강의 멤버가 모인 18기 병만족이 최강이라는 이름을 검증할 사상 최악의 미션을 수행한다. 서인국은 메콩강에서 통발 설치를 완벽히 해내고 노래를 부르던 중 배가 뒤집혀 강에 빠진다.

◆ KBS2 '용감한 가족' 오후 11시10분

설현이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라는 질문에 가족 중 한명을 지목한다. 박주미는 제작진을 피해 한국에서 가져온 신의 한수로 이문식에게 "박주미가 현빈 중 제일 잘 한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 엠넷 '댄싱9 시즌3' 오후 11시

최고의 댄스대결이 시즌3로 돌아와 첫 방송한다. 시즌1, 2를 통해 한 번씩 우승을 차지했던 하휘동, 김설진 등 레드윙즈, 블루아이의 총 예멤버들이 모여 치열한 대결을 통해 진정한 우승팀을 가린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일 (금)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뮤직뱅크	11 생방송 오늘 저녁	20 [illegible]	00 처음 놀이터 (재) 25 영어동요 Pool Pop 1개 40 Creativity and English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illegible]	50 [illegible]	15 황금의 제국사 (8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31회)	00 로보카 폴리 (재) 20 스클랜드 [illegible] 50 [illegible] Big Family (재)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95회)	55 VJ 특공대	55 압구정 백야 ([illegible]회)	00 SBS 8 뉴스 55 궁금한 이야기 Y	00 지식 e [illegible]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illegible]> 1회	30 리얼스토리 눈		17 세계의 교육현장 (재) 30 [illegible] 40 EBS 스타 강사 [illegible]
22시	00 [illegible] 55 [illegible]	00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illegible]> 2회	00 나는 가수다	00 정글의 법칙	30 다큐 [illegible]
23시	20 KBS 뉴스라인 00 [illegible]	10 용감한 가족 (11회)	15 나 혼자 산다	25 불타는 청춘	20 세계의 [illegible]
24시		30 유희열의 스케치북	35 MBC 뉴스 24	20 나이트라인	00 [illegible] 3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30 썰전 (109회)		00 2015 [illegible] (1회)	30 TV 동물농장 (417회)	후 6:30 ●프로야구 삼성 vs LG (잠실) MBC SPORTS+ SPO TV2 SK vs 넥센 (목동) SKY TV 두산 vs 롯데 (사직) [illegible] 한화 vs NC (마산) KBS N SPORTS [illegible] KIA vs KT (수원) SPO TV
19시	55 JTBC 뉴스룸	50 슈퍼대디 열 (8회) (재)	00 [illegible] (14회) 50 오늘 뭐 먹지 (121회)		
20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8회) 재	50 슈퍼대디 열 (7회)	00 오늘 뭐 먹지? (35회) 50 한식대첩 시즌2 (7회)	00 [illegible] 3부 [illegible]	
21시	45 순정에 반하다 (1회)	40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5회)		00 [illegible] 2/3부 [illegible]	
22시			00 [illegible] (14회)	00 [illegible] (3회)	
23시	20 마녀사냥 ([illegible]회)	20 [illegible] (1회)	50 [illegible] (15회)	00 1차 세계 대전 4부 [illegible]	
24시	35 [illegible]	40 슈퍼대디 열 (7회) (재)	00 [illegible] 2 ([illegible]회) 30 2015 [illegible] (7회)	00 1차 세계 대전 5부 [illegible]	

서울역에서 한국화 만나요

서울역이 한국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옛 서울역은 2012년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역서울 284는 1일부터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기획전을 30일까지 연다. 기획전에는 서정태, 이강소, 함섭 등 미술작가 29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장르와 재료의 경계를 넘어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를 위해 한국화를 비롯한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작에는 한지를 이용한 수묵 채색 작품뿐 아니라 구본창의 조선백자 사진, 나무를 이용한 설치 작품 등이 포함돼 있다.

전통 묵죽이란 매개로 한 현대적 느낌의 회화, 한지의 먹을 이용해 스스로 유희적 성격의 작품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김호득, 나점수, 박병춘, 송수련, 오숙환, 오태학, 이종구, 임택, 장상의, 정현, 조환, 차기율, 홍순주 등의 작품을 포함해 총 100여점이 전시된다.

문화역서울 284는 "많은 한국인의 사연이 스쳐 지나간 이 공간에서 한국화가 지닌 특징과 의미, 현대미술로서의 가능성과 가치 등을 진단해 봄으로써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perience "Koreanization" at Seoul Station

Seoul Station is about to be reformed as a place for Koreanization. Former Seoul Station has re-opened in 2012 with the name "Culture Station Seoul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will hold an exhibition under the title of "The Boundary of Koreanization and Expansion" from the 1st until the 30th of this month, 29 artists including Seo Jung Tae, Lee Kang So, Ham Sup and many others will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This exhibition was planned with an objective to think about the new possibilities of Koreanization going beyond the limits of the genre and materials.

The exhibition does not only include pieces of colorings and Indian ink collaborated with Hanji, but also Chosun Bakja picture of Gu Bon Chang and Wooden art pieces as well.

There are also art pieces that show modern paintings made of traditional Dak-paper and self-amusing pieces done by Hanji and ink. There are about 100 art pieces by Kim Ho Deuk, Na Jum Su, Song Su Ryeon, Oh Sook Whan, Oh Tae Hak, Lee Jong Gu, Lim Taek, Jang Sang Eui, Jung Hyun, Jo Whan, Cha Gi Yul, Hong Soon Ju and so on.

Culture Station Seoul 284 embraces the stories of many Koreans and this will verify our artistic identify by examining the potential and value of modern art and the meaning of characteristics Koreanization has.

/자료제공 [illegible] Chris Kim [illegible]

맥도날드 임금 10% 인상

시급인상 전국시위 의식한 듯

맥도날드가 경영 돌파구 마련을 명목으로 임금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다가오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전국적 시위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티브 이스터브룩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한 후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은) 2년째 계속된 매출 부진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침"이라며 "의욕적인 직원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 내 직영 매장 직원의 임금을 10%이상 올리고 휴가 수당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금은 지역별 법정 최저임금보다 최소 1 달러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9.01달러인 평균 급여는 7월 1일부터 9.90달러로 오르고 2016년엔 10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주당 평균 20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도 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1500여개 매장에 일괄 적용되며 수혜자는 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로자 수가 약 75만명에 달하는 1만2500여개의 미국 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게스필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붙어 실시한 구인광고. /AP 뉴시스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앞다퉈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월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도 줄줄이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업계는 잠잠하지 않아 오는 15일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주축의 전국적인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시급 15 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맥도날드의 임금 인상은 타 프랜차이즈 매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서이기자 [illegible]

멕시코시티의 빨간 하이힐

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놓여졌다

1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광장에 놓인 빨간 하이힐들. 이 신발들은 여성 실종과 [illegible] /연합뉴스

국민연금 중대 의결에도 정부·근로자대표 '불참'

지난 [illegible] 중구 소공동의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에서 참석 위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위원 고작 한두번 참석 민노총 공공노조도 비슷

국민연금 수익률 매년 하락 2014년 5.25%, 2013년 4.2% "2052년엔 기금 소진" 비판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중대 의결에 근로자대표들이 불참하고 정부 역시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연금 운용 의사결정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일 메트로신문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에 열린 운용위원회 1차회의에 한국노총, 민노총, 공공노조 등 근로자대표 3명 전원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용위원회는 이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중 사외이사 선임반대 기준을 의결했다.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60%미만이었던 자라는 이전 기준을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로 하고, 신규 임기를 포함해 당해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라는 기준을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업체를 감시할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중대한 의결에 근로자대표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들이 대변해야할 근로자의 목소리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측을 걱정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다음 지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노동계 출신 3명의 위원들이 나오게 될 경우 이 논의가 또 다시 재정하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같이 그때 이 안건을 하는게 어떠나"고 우려섞인 의견을 나타냈다. 운용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안건을 의결했다. 근로자측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근로자측이 더 강화된 조건을 원할지 모른다는 고려는 없었다.

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방향에 대한 공식 원칙은 논의조차 못했다. 위원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계) 세 분께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한다는 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다음으로 논의를 미루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차회의와 3차회의에 민노총 관계자는 또 다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총 5번의 회의에서 근로자대표 중 한국노총만이 4번 참석했을 뿐 민노총과 공공노조는 단 2번 참석했다.

충실히 참석하지 않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야지만 지난해 연금공단만이 모두 참석했을 뿐이다. 전혀 참석하지 않은 차관부터 한두번 애써다 참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한 1차회의 역시 연금공단만이 참석했고, 기재부 차관만이 대리인을 보냈을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을 분배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바뀐다.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써 회의를 통해 500조원에 가까운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즉 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 대표와 연금 지급 책임자인 정부 대표는 저조한 참여율로 일관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첫 회의에서 위원장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출석이 이유였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5.25%, 2013년에는 4.2% 수준이었다. 현행 수준대로라면 2052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도성환 사장 28일 첫 공판

고객정보 빼돌려… 증거인멸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고객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성환(59·사진) 홈플러스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형사16단독 박신영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한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시켜 도 사장을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억여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열었다. 개인정보 712만건이 수집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봤다. 합수단은 이들이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시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았다.

합수단은 경영진 외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MB 자원외교 청문회 출석해야"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특위는 이 전 대통령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위기의 문재인, 모든 계파에 "SOS"

김한길·안철수·박지원 등 만찬 겸한 원탁회의 제안 재보궐 지원 요청할 듯

탈당한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동시 출격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지도부급 인사들에게 구조요청을 보냈다.

문 대표는 2일 정세균·김한길·안철수·이해찬·문희상 전 대표와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겸한 원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당내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번 4·29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먼저 숙이고 나왔지만 결과는 비노(비노무현)계로 분류되는 김·안 두 전 대표와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의 반응에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4·29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구조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원탁회의에도 먼저 잡힌 지방강연 일정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도 '심한 감기'로 불참한다. 다만 "요청이 있으면 우리당 후보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문 대표의 구조요청에 화답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당과 후보가 요청해 올 경우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재·보선 지원에 유보적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신림역사거리를 방문해 관악을 보선에 출마한 정태호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까지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지역 선거 지원에도 나섰다. 이날 원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현재 '통 큰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경희대-NASA, 교류협약?

학교 만우절 이벤트에 학생들 깜빡 속아

경희대학교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교류 협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만우절(4월 1일)에 기해 알린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정 경희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희대-미국항공우주국 국내 대학 최초 교류 협약 체결'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경희대가 미국항공우주국과 함께 천문학 분야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을 위한 학생 인턴 파견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또 도킹이론과 실습·웜홀학개론·블랙홀의 이해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고 알렸다. 해당 강좌를 모두 수강한 신입생에겐 인듀어런스호를 탑승할 기회가 주어지며, 비용은 전액 무료라고 적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만우절을 기해 일부러 허위로 알린 이벤트성 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몰랐던 학생과 기자들이 학교 측에 이 게시글에 대해 문의했다는 후문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조회수를 높이고 만우절인 만큼 웃고 지내자는 취지에서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최현정기자 hmlook@

다음주 '★★★' 8명 탄생

<특징>

국방부, 상반기 장성 인사

다음 주 군에 중장(별 셋) 8명이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2일 "국방부는 다음 주에 상반기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성 인사 때 육군 3명, 해군 2명, 해병대 1명, 공군 2명 등 총 8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 4성 장군 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군은 임기가 도래한 중장들이 교체되면서 육군사관학교 40기 중에 최초로 3성 장군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군에선 공석인 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이 새로 임명되고, 공군에선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중장 진급자가 임명될 전망이다. 중장 자리인 공군교육사령관은 현재 소장이 맡고 있다.

해병대는 임기가 올해 9월까지인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중장)이 물러난다. 후임자로는 소장인 이상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과 김시혁 해병대 부사령관, 황우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해군 출신인 최윤희 합참의장의 교체로 4성 장군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번 장성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4성 장군 인사가 포함되면 육사 37기의 대장 진급이 예상됐으나, 상반기 장성 인사가 중장급 이하로 제한되면서 육사 37기 4성 장군의 탄생은 올해 하반기 인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육·해·공군 인사위원회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아기자 yoona@

"록히드마틴 사드정보 안 받았다"

국방부, 록히드마틴 측 발언 전면 부인

국방부는 2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개발사 록히드마틴 측이 한국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3년에 방위사업청에서 우리의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연구개발을 위해서 일부 사드와 애로우(이스라엘 요격미사일) 관련 자료를 제작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당시) 업체로부터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응신을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2013년도에 방공포병전투발전세미나에서 록히드마틴이 일부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것은 확인했다"며 "2가지 (사례) 외에 특별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윤정원기자